

2019년 6월 24일,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이화인(남, 1939년생, 서귀포시 천지동)

- 서귀포시 모슬포 출생, 1977년 이주하여 현재까지 40년 넘게 서귀포시 천지동에 거주 중이다.

- 줄거리: 중국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메밀을 주어 백성을 말려 죽이려 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밀에 잘 어울리는 무를 발견하여 빙떡을 만들어 먹고 지혜롭게 이겨냈다.

[제보자] 이 제주도에 빙떡이라는 것이 있어, 빙떡. 거 모멸 빙떡이 처음에 왔느냐며는 예, 중국에서. 예, 우리 그 우리나라를 차지할라고 허니까 전쟁을 해야 우리나라를 뺏어 먹을 거 아니라게. 그래 우리나라가 누가 뭐 참 그러게 함부로 그영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 굶어 죽여가지고 머 빼빼 말르게끔, 말르게끔 할라고 허니까. 그 모멸이엔 헛 것이, 모멸 그 가루가 사람 피를 말리는 거라. 모멸, 피를 말리는 거라. 건디 그렇게 해가지고 거 우리가 먹을 것 없으니까 중국에서 그 모멸씨를 갖다 줬어. 모멸 해서 이거를 해서 너네들 먹어라. 그래서 인제 거 거기서 지원을 해 주니까. 그렇게 그래도 양식이 없으니까 그걸 준다는 것이, 아이고 피를 말려가지고 이거 빼빼 말려서 인자 이런 때 힘없고 헛 적에 인자 또 쳐들어가기도 허고 이 나라를 인자 뺏을라고 그랬더니마는. 씨를 줘서 이제 농사를 전 보니까.

[조사자] 네.

[제보자] 그 여기 사람이 머리가 또 한국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조선 사람이 머리가 영리 해가지고 모멸에는 무, 무가 제격이라는 거라 무. 무를 해가지고 무를 놔서 인제 썸 그거를 빙떡 해 먹고, 즈배기, 즈배기도 해가지고 무를 같이 놔서 먹으니까 나중에 머 한 몇 년, 일이년 있다가 완 보니까 살만 찌고 등치만 좋고 허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라.

그러니까 이 메밀, 메밀에는 무가 적합하다. 그래서 빙떡에는 무를 놓는 거라. 그렇다는 것을 내가 한번 들었어. 내가 들은 말 있어.

[조사자] 모멸하고 무하고는 완전 궁합이.

[제보자] 응 궁합이 맞다.

- 핵심어: 모멸(메밀), 무, 중국, 즈배기(수제비)